

2021학년도 입학식 개최

온라인 축하를 받으며 거행 “배움과 수련에 힘쓰겠다” 입학 선서



▶동서대 제30회 입학식

코로나19 영향으로 2021학년도 2월 26일 입학식이 소규모의 오프라인 참석자와 온라인 줌(zoom)을 통한 비대면 참석자 2000여명, 그리고 그 외 유튜브 채널 생중계를 통한 재학생 및 학부모와 함께 소규모 아트홀에서 개최됐다. 낮선 온·오프라인 환경 속에서도 우리 대학 출신 입학정이나온사의 매끄러운 진행으로 시작된 입학식은 임권택 영화예술대학 선배들의 멋진 비대면 공연과 각 대학, 학부, 학과의 응원전으로 이어져 대면 행사 못지않은 뜨거운 열기가 끊어지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의 대면 행사와 달리 참석자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 후 주먹인사를 하는 등 방역 환경 속에서 입학식이 진행됐다. 매년 계속되던 세족식도 취소하고 온라인 줌 영상 속의 신입생들과 재학생들의 소통에 귀 기울이는 방식으로 행사를 이어갔다.

이날 행사는 ▲교기 입장 ▲임권택 영화

예술대학 뮤지컬전공 재학생 축하공연 ▲국기에 대한 경례 ▲기도 ▲연혁 및 학사 보고 ▲입학 허가 선언 ▲신입생 대표 선서 ▲환영사 ▲격려사 ▲졸업생 환영사 ▲폐식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장재국 총장은 신입생들에게 아이패드 2개를 경품 추첨 무작위 방식으로 선별했다. 이는 당첨된 신입생의 기쁨과 더불어 다른 신입생들의 축하의 목소리와 메시지가 온라인으로 오고 갔다. 총학생회에서도 신입생 대표 박서영(바이오켄스융합대학) 학생에게 꽃다발을 전하며 후배들의 입학

을 축하했다. 신입생 2029명은 이날 정식 입학하기를 받고 “학교의 제반 학적을 준수하며, 재학 중 배움과 수련에 힘쓰고,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겠다”라고 선서했다.

장재국 총장은 입학식사를 통해 새내기들에게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큰 뜻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 여러분은 가장 큰 재산인 젊음을 지녔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지금부터는 신명동 동서대가 여러분의 울타리가 되어 줄 것입니다. 우리 대학의 교조인 목수리처럼 힘차게 날아오르십시오”라는 말과 함께 “동서대에 입학하기 전 Before Dongseo에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어려움에 처했는지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바로 지금부터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고 어떤 노력을 기울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장래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제부터, 바로 지금부터 여러분이 After Dongseo를 실현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재국 총장은 “동서대는 여러분이 품는 희망과 포부가 원대하듯이 앞으로 여러분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도약을 거듭하고 여러분이 졸업할 즈음 지금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글로벌 명문 대학으로 우뚝 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서 박동순 동서학원 이사장은 “좋은 친구를 만나려면 내가 먼저 좋은 친구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교수님 연구실에 노크하고 교수님께 다가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평생 함께 갈 평생 지도 교수를 만날 것입니다”라며 당부의 말을 건넸다.

특히, 동서대학교 건학 이념인 진리, 창조, 봉사를 깊이 새겨 달라는 말과 함께 마지막으로 “힘들더라도 중단하지 말고 참고 4년 동안 꾸준히 설계하면서, 매일매일 새로워지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대학생이 될 것입니다. 멋진 After 동서인이 될 것입니다”라는 격려의 인사를 건넸다.

최은석 기자
dmstir1526@gmail.com

2021 교직원 신년 예배 및 하례회

대학 발전에 온 힘 쏟겠다는 다짐을 하며



▶신년 예배 및 하례회

지난 1월 6일, 동서대·부산디지털대·경남정보대 교직원들은 2021년 신년 예배·신년하례회에 참석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학 만들기에 온 정성을 쏟기로 했다. 올해 동서학원 표어인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에 길을, 사막에 길을 내리라’처럼 학교법인 동서학원의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2021년 큰 성취를 이루어내겠다고 다짐했다. 2021년 동서학원 표어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길을 내리라’는 이사야 43장 19절을 바탕으로 선정됐다. 속도를 맡은 우리 대학 교육실장 유인신 박사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 속에서 고난과 역경이 계속되고 있으나, 위기와 실패를 극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를 위해 광야와 사막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도록 구성원들이 비전을 공유하며 살아가자”라고 강조했다.

신년예배가 끝난 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대폭 축소된 신년하례회를 대신하여 박동순 이사장의 신년사와 3개 대학 총장들의 신년인사로 마무리했다. 박동순 동서학원 이사장은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는 인사를 통해 “오늘날 이렇게 아름다운 동서학원을 이룩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눈물겨운 사랑의 수고로 이룩한 것이라고 감격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사랑하는 동서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이어 “우리는 길이 없는 황량한 광야에 고속도로를 내고, 물 없는 사막에 강을 만들어내는 수고에 우리 모두가 서로 분담하고 뜻을 모으는 일에 함께 해 나가겠다. 우리는 지금까지 품고 온 꿈을 내려놓지 말고, 마음을 단지 말고, 서로 원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손에서 일을 놓지 말고, 아름다운 희망을 가슴에 품고 항상 서로 위로하며, 손잡고 발맞추어 걸어갑시다”라고 3개 대학 교직원에게 말했다.

장재국 총장은 “동서대학교는 올해를 새로운 길을 모색해나가는 원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라는 말을 전했다. 이어서 장총장은 ▲특성화 분야에 글로벌 스탠드라 적극 추진을 목표로 부총장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2개(디지털콘텐츠, 디자인)의 특별 위원회 설치 ▲인공지능을 활용한 모듈 교육 등 교육과정, 교육 방법에 과감한 혁신 추진 ▲우리 대학 교육 시스템의 해외 수출과 새로운 형태의 유학생 유치 방안 마련 등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올 한해 동서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라고 전했다. 이날 예배에서 뮤지컬과 하병욱, 이홍득 교수의 이중창으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를 특송으로 선사하여 자리를 빛냈다.

최은석 기자
dmstir1526@gmail.com

제26회 학위수여식 행사

온·오프라인 융합형 졸업식으로 참여율 증가



▶온·오프라인 학위수여식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사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됨으로써 제26회 학위수여식이 80여 명의 오프라인 참석자와 온라인 줌(zoom)을 통한 비대면 참석자 총 700여 명이 2월 19일 소량아트홀에서 모여 거행됐다. 기존에는 100명만 선착순으로 모집할 예정이었으나 580여 명(대학원생 포함)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총 350명의 졸업생이 참석할 수 있도록 참석자 수를 대폭 확대했다. 더불어 우리 학교 유튜브 채널 생중계를 통해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도 함께 학위수여식에 참여하여 자리를 빛낼 수 있는 기회를 높였다.

특히 오프라인 졸업생 참석자 중 선착순 100명에게 기프트콘을 전달하고, 모든 온라인 참석자에게는 학위복과 졸업장을 택

배로 전달하여 졸업식 참석자 전원이 졸업복장을 입고 온라인으로 행사장에 참석했다. 이들 졸업생은 코로나19 사태로 졸업식장을 직접 방문할 수 없지만, 학사모와 학위복을 작장 후 온라인 졸업식에 참여함으로써 대학생활 중 단 한 번뿐인 추억을 남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기존 대면 졸업식에 비해 비대면 참여도가 더욱 높아진 현상이다. 단순히 가족과 친지와 사진만 찍고 정차 행사장에 참석하지 않던 일부 졸업생들의 발걸음을 온전히 학위수여식 행사장에 집중하고, 코로나19 시국에서 졸업의 의미를 더욱 소중히 되새겨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이다.

이날 행사는 ▲개식사 ▲국기에 대한 경례 ▲기도 ▲연혁 및 학사보고 ▲임권택

영화예술대학 뮤지컬전공 재학생 축하공연 ▲졸업식사 ▲격려사 ▲학위증서 및 수료증서 수여 ▲상장 수여 ▲폐식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그 외 행사 진행 도중 장재국 총장이 졸업생들에게 아이패드 2개를 선물하는 무작위 경품 추첨 시간이 가졌다.

졸업식에서 박사학위 21명, 석사학위 101명, 학사학위 2,271명을 배출했다. 박사학위의 경우 일반지역 연구과, 에너지/생명공학과, 영상 콘텐츠학과, 유비쿼터스 IT 학과, 디자인학과, 문화예술 공연학과 등 6개 학과에서 인재를 배출했다. 석사학위 졸업생은 일반대학원 71명, 경영대학원 6명, 선교복지대학원 22명, 디자인 전문대학원 2명이다. 학사학위의 경우 6개

대학, 6개 학부·3개 계열, 34개 전공·20개 학과에서 졸업생을 배출했다.

장재국 총장은 정든 교정을 떠나는 졸업생들에게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여러분의 앞날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진심 어린 자세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려움과 근심을 떨쳐 버리고, 의연하게 사회로 나아가 우리 사회의 The Only One 인재로 자리매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졸업을 다시 한번 축하하며, 오늘 이 자리를 빛내 주신 모든분의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라고 당부했다.

평소보다 뜨거운 졸업식 참여율로 폐식사가 마무리되면서 동서학원 민선상 수상자 이재성(경영학 전공) 졸업생은 “부족할 땀 많은 제가 많은 기회들을 통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여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졸업 소감을 전했다. 전체 수석 이찬희(패션디자인학과) 졸업생은 “드디어 졸업을 맞이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번 해에는 코로나19라는 힘든 환경에 부딪치며 졸업했습니다. 그럼에도 교수님 그리고 학우분들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온라인으로 소통하며 함께 졸업의 문에 무사히 도달할 수 있어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사랑으로 지혜의 교류를 안겨주신 동서대학교의 모든 교수님들과 존중한 과정을 뜨거운 열정으로 함께 해 준 학우분들, 학교의 다양한 부서에서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교직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는 졸업 인사를 남겼다.

최은석 기자
dmstir1526@gmail.com

아시아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GBA-Korea 컨소시엄 구성 및 양해각서(MOU) 체결



▶GBA-Korea 스타트업 양성을 위한 MOU 협정식

우리 대학은 2월 8일 오후 2시 뉴딜레니안관 11층 글로벌 룸에서 홍콩의 골드포드 그룹(Goldford Group), G-Rocket 액셀러레이터, 한국의 시티랩스, 온차이나 등 4개 사와 혁신 스타트업 투자 및 인재양성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컨소시엄 이름은 GBA-Korea이며, GBA는 중국판 실리콘 벨리인 웨이하오(灣港澳·광둥성+홍콩+마카오) 다원취(大灣區·Great Bay Area) 지역으로, 각종 규제를 없애고 대외개방도를 가장 높이고 있는 국제적인 비즈니스 지역이다. 특히 텐센트, 광치 그룹, 평안, 레노버, 초상그룹 등 중국 유니콘 기업 35개, 포춘 500대 기업이 20곳이나 있는 지역이다.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도쿄의 베이 에어리어(Bay area)에 이어 전 세계 4번째 해안 거점 성장 지역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콩의 G-Rocket은 한국 스타트업 기업들의 중화권 거점 제공, 외국 투자자 유치, 해외시장 연계 등 성장 지원을 담당한다. G-Rocket은 현재 웨이하오다원취 지역인 홍콩, 선전, 광저우, 중산 외에도 난징, 스자좡, 청두 등 총 7개 지역에 각

지방정부에서 출자한 지역 센터들을 보유 운영하고 있다.

우리 대학은 컨소시엄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교육, 멘토링 제공 및 유망 전공 분야 학생들의 창업과 글로벌 기업 취업 연계 지원 등의 역할을 할 계획이다. 장재국 총장은 “동서대학교의 특성화 분야이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디자인, 디지털콘텐츠, 정보통신 분야의 교수 및 연구진들이 동 컨소시엄을 통해 글로벌 산학협력 및 연구개발(R&D) 프로젝트 협력, 유망 스타트업들의 교육 및 멘토링 지원, 유망 전공 학생들의 창업 및 글로벌 기업 취업 등 성공적인 국제협력 사업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최은석 기자
dmstir1526@gmail.com

사령

- 편집국장-김경은(경영·3)
- 정기자-나경훈(방송영상·4)
이유진(관광경영·3)
최은석(International·3)

보건행정학과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인증 획득

‘부산 유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 라는 쾌거 이뤄



▶보건의료계열 보건행정학과 학생들

우리 대학 보건행정학과가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의 '2020년 제 1주기 (최초)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에서 인증 3년과 예비인증 2년을 획득했다.

보건행정학과는 부산지역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인증을 획득했다는 쾌거를 이뤘다.

이 인증은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 프로그램(교육과정)이 교육 구성의 제 요소 및 성과 중심 교육체제를 갖추고 교육의 질을 지속해서 개선·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의 발전을 촉진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배출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앞으로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에서만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양성 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이 인증을 통하여 교육과정을 정비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전문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이뤄졌다.

이날 보건행정학과는 평가 기준의 총 5개 영역 52개 평가항목에 우수한 성적으로 인증을 획득했다.

이에 우리 대학 보건행정학과는 우수한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양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아울러 보건교육, 보건정책관리 등의 교육과정과 함께 다양한 미래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게 됐다.

인증기간은 올해 3월 1일부터 3년 뒤인 2024년 2월 29일까지이다.

2020년도 2회차 인증을 받은 동서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외에 인증을 획득한 대학은 (1회차) ▲대전보건대학교 의무행정정보 ▲대전보건대학교 의무행정정보과 (2회차) ▲부천대학교 보건의료정보 ▲단국대학교 보건행정학과 (4회차) ▲진주보건대학교 보건행정과 ▲충북보건과학대학교 보건행정과가 있다.

보건행정학과는 복지국가 실현 및 국가의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할 유능한 보건행정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행정학과는 "현재 전문화, 정보화, 개방화되어 가는 의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보건의료현장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보건행정과 양성을 위해 영어

및 외국어교육, 보건행정정보 및 실무교육을 강화시킨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학과는 ▲보건 관리학 및 행정학 ▲조직 관리 및 인사 ▲재무 등의 기초이론과 보건행정 실무에 필요한 ▲의무 기록 ▲건강보험 관련 과목 이수 ▲의료현장 실습 등의 교육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보관리 ▲원무행정관리 ▲건강보험 청구 및 심사 관리 등 보건정보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보건행정학과는 이를 통해 보건직 관련 공무원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보건의료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현재 졸업생들은 대학 병원 보건의료정보 분야, 보건직 공무원, 생명보험 분야, 국가기관 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 중에 있다.

이효영 보건행정학과 책임교수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학과 교수들과 함께 질 높은 교육과정과 여건을 조성해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나경훈 기자
nkh0301@gmail.com

AI 인력양성을 위한 공동협력 MOU 체결

교육협력, 연구교류, 공동사업 등 협력체제 구축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전창배 이사장(왼쪽)과 우리 대학 SW중심대학사업단 문미경 단장이 온라인으로 각각 문서 서명 후 기쁜 활영하고 있다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KAIEA, 회장 이창배)는 우리 대학 SW중심대학사업단(단장 문미경)과 '인공지능 인력양성을 위한 공동 교육 및 사업협력 협약서'를 지난 1월 7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와 동서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은 상호 긴밀한 교육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프트웨어(이하 SW), 인공지능(이하 AI)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이에 관련한 공동 연구와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 윤리 교육의 커리큘럼을 공동 개발하고 관련 교안, 교재의 공동 저술,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가, 교수진의 상호 지원, 대학생 진로 캠프 및 동아리 프로그램의 공동 운영, AI와 AI 윤리의 활성화를 위한 학술대회 및 콘퍼런스의 공동 개최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우리 대학은 문화콘텐츠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소프트웨어(SW) 융합인재를 양성한다.

SW융합대학 5개 SW중심학과(SW학과, 정보보안학과, 게임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학생이 AI 심화 트랙에

참여해 36학점을 이수하면 AI 및 빅데이터 복수전공 학위를 수여한다.

동서대 SW중심대학사업단은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교양필수로 코딩교육을 진행한다. 코딩교육이 부담스러운 예술대, 체대 학생을 위해 AI, 빅데이터, SW를 보다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체험형 커리큘럼을 개발, 교양선택으로 제공한다.

우리 대학은 수년 전부터 전교 차원에서 SW전공 및 기초교육 체계를 준비해왔고 2019년 자체적으로 SW융합대학을 신설해 SW교육체계를 완료했다. 이를 기반으로 2019년 하반기 과기정통부 SW중심대학에 선정됐다.

사업단은 오는 2024년까지 6년 동안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글로벌 정보통신기술 및 영상콘텐츠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국내 지원 103억 원을 AI·SW융합교육에 집중 투입한다.

사업단은 2019년 과기부 SW중심대학으로 선정된 이래 지역사회와 산업을 위한 문화콘텐츠 AI·SW융합인재 양성을 목표로 AI심화트랙, AI융합전공 개설 등 대학의 인공지능 교육체계를 강화시켜나가고 있다.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는 인공지능 윤리

와 안전 문제에 대한 연구, 인증, 교육, 전파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비영리기관으로 작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안 제정에 참여한 바 있으며 작년 12월에는 국토교통부와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 공동 연구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문미경 동서대 SW중심대학사업단 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4차산업의 핵심인 인공지능 기술의 교육뿐만 아니라 비전공자와 일반인을 위한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창배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은 "최근 국가차원에서 인공지능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수요에 비해 인재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협회와 동서대 SW중심대학사업단은 상호 역량을 집중하여 국가의 인공지능 인재양성에 기여한다. 특히 AI 기술력뿐만 아니라 AI 윤리까지 갖춘 인공지능 리터러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자료출처: 서울경제
나경훈 기자
nkh0301@gmail.com

작업치료학과 7년 연속 국가고시 100% 합격

부·울·경에서 유일하게 7년 연속 합격 거머쥐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이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대학 보건의료계열 작업치료학과가 7년째 이어 올해 또 한 번의 영예를 누렸다.

작업치료학과는 부·울·경 작업치료학과 중 유일하게 2014년부터 올해까지 7년 연속으로 작업치료사 국가고시 100% 합격을 달성했다.

지난해 12월 5일에 시행된 국가고시에 작업치료학과 학생 57명이 응시하여 전원 합격했다.

특히 4학년 이상생, 백소영 학생은 240점 만점에 229점을 득점해 전국 차석의 영예를 누리게 됐다.

이번 국가고시 전국 차석을 거머쥔 이성우 학생은 "올해는 실습 및 많은 것들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학과 교수님들의 다년간의 국가고시 준비 노하우 및 다양한 특강과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라며 "다음 해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학기 중 전공 과목에 대해

열심히 공부해놓고, 교수님들이 해주시는 특강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잘 참여한다면 국가고시 및 졸업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가지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도해 주신 윤태형, 김태훈, 정남해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또 한 자리의 차석에 올랐던 백소영 학생은 "학과에서 진행한 다양한 특강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특강과 좋은 환경에서 실습 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고 열심히 지도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라며 "또한 옆에서 지지해주고 응원해준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국가고시를 앞 둔 후배들에게는 학과 교수님들께서 준비해주시는 특강과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씀해주고 싶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작업치료학과는 학기뿐만 아니라 방학에

도 다양한 특강 프로그램, 자율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연구회, 스터디 그룹 등을 통하여 학생들이 교류하고 상호 지지하여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나오지 않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연세대학교 병원, 한양대학교 병원, 양산부산대학교 병원 등 국내 최고 수준의 기관에서 학생 1인당 임상실습교육을 1000시간 이상 시행하여 실기형 및 사례형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 역량을 키우고 있다.

정남해 책임교수는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부분의 특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였고, 모의고사도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하였지만 학생들이 열심히 노력한 것 같다. 전국 수석자는 230점으로 우리학생들과 단 1점 차이의 성적이다. 2021년에는 전국 수석이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나경훈 기자
nkh0301@gmail.com

어려운 이웃과 아동 위해 두 팔 걷다

사랑의 생필품, 아동용 마스크 기부해



▶주례2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기부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 대학이 어려운 이웃과 아동을 위해 두 팔 걷고 나섰다.

지난 1월 5일 동서대 총학생회와 교직원 상호조는 '사랑의 생필품'이라는 뜻으로 생필품을 기부했다.

출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가 기부의 주된 대상이다.

이날 전달한 물품은 생필품 200박스(1박스 24,000원, 480만원 상당)이다.

생필품(라면 등)은 주례2동 주민행정센터, 생활동(라면 등)은 주례2동 주민행정센터, 모리동 백양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출로 사는 어르신과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전달했다.

생필품은 총학생회, 교직원상호조에서 마련했다.

한편 우리 대학 학교기업 애니모션과 경남정보대학 슈기트도 지난 1월 28일 '아토프렌즈' 캐릭터가 그려진 아동용 마스크 200개를 주례2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애니모션은 자체 IP 캐릭터인 '아토프렌

즈'를 활용하여 다양한 상품을 제작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국내 신발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경남정보대학 슈기트와 협업하여 마스크를 제작했다.

애니모션 대표 조승우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가 필수품이 되어버린 오늘날 마스크를 착용하는 아동들에게 조금이나마 즐거움을 주고자 캐릭터 마스크를 제작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봉정생 주례2동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에 직접 제작한 마스크를 기탁해주시어 감사드리며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마스크를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애니모션은 지난해 교육부 3단계 연합형 학교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3단계 지원사업 연속 선정은 애니모션이 전국에서 유일하다.

나경훈 기자
nkh0301@gmail.com

동서대 신문사 이·취임식

새로운 시작 그리고 변화



▶오종서 신문사 주간교수(왼쪽)와 김태향 신문사 전 국장이 공로로 수여식을 하고 있다

지난 2월 3일 오후 2시 우리 대학 신문사(산학협력관 6층)에서 동서대학교 신문사 이·취임식이 진행됐다.

이날 광고PR전공 김태향 전 국장이 이임하고 경영학과 김경은 국장이 취임했다.

행사는 ▲개회사 ▲국민의례 ▲지도교수 축사 ▲국장 이임사 ▲차기국장 취임사 ▲국장 전달식 ▲감사패 전달식 ▲폐회사 순으로 진행됐다. 사회는 조은빛 기자가 맡았다.

모든 구성원들은 새로 취임하는 국장에게 뜨거운 환영의 박수를 보내며 새로운 시작을 함께 다짐했다.

오종서 신문사 주간교수는 "코로나19로 정말 힘들었던 신문사를 책임진 김태향 전 국장의 노고를 칭찬한다"며 "올해 국장도 전일 국장의 뒤를 잘 이어가기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새로 취임한 김경은 편집국장은 차기국장 취임사에서 "태향 국장님께서 너무나 잘 이끌고 해주신 국장직을 잇게 돼서 이 자리에 오르는 것에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국장이라는 무거운 직책을 맡게 된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행사의 마지막에 김경은 국장과 제 역할을 수행했던 기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또한 "올해 함께 하게 될 분들에게 제가 부족함이 많지만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나경훈 기자
nkh0301@gmail.com

부산권 최대 규모의 '창업 지원 장학금'

창원지원단 부산벤처 창업 페스티벌 중소 벤처기업부 장관상 수상자 배출



▶DSU 실전창업경진대회 시상식

우리 대학은 지난날 20일 'DSU 실전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2015년부터 시작되어 6회째 개최 중인 이 행사는 '실전창업프로젝트'의 결말을 장식하며 그동안 해온 성과를 알리는 자리이다. 또한 이를 통해 창업역량을 강화하고 사업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창업을 지원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우리 학교 뉴밀레니얼관 8층에서 진행되었으며 창업에 관심이 있는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1차 서류 심사 후 15팀을 선발해 2차 본선에 진출하게 된다. 기계, 영상, 디자인, 생명, 식품 등의 분야에서 창업 아이템이 있을 경우 해당 아이템의 소개와 사업성, 차별성을 요약 작성하여 제출한다. 해당 아이템을 ▲개요 ▲실행 가능성 ▲시장성 ▲사업화 가능성 ▲기타로 크게 나누어 신청서를 작성한다. 아이디어를 개발하게 된 동기, 필요성(목적), 세부내용 및 사업 전망(제작 소요기간, 추진 일정, 구현 정도), 개발 방안 및 계획, 파급 효과 등이다. 그 외에도 아이템을 이용하여 창업을 할 시 매출 및 이익 구성을 그림이나 표를 통해 기재하거나 수상실적을 작성한다. 위의 내용을 발표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어 발표 6분, 질의응답 4분으로 총 10

분여 걸쳐 발표 평가를 진행한다. 지난날 28일은 '실전창업 경진대회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65개의 창업팀 중 23개의 팀이 참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학생들은 성실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좋은 성과를 일궈냈다. 총 8개의 팀을 시상해 상장과 함께 대상 1000만원, 최우수, 우수, 장려는 2명으로 각각 900만원, 600만원, 500만원, 특별상으로는 355만원을 창업지원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총 5355만원으로 이는 부산권 대학 중 최대 규모의 창업 지원 장학금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디자인학부 3학년 뉴밀(장의찬 외 1명) 팀이 수상했다. 대상을 받은 팀의 장의찬 학생은 "내가 원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었다. 대학의 창업 지원 플랫폼을 활용해서 창업에 대한 꿈을 더욱 키우고 싶다. 창업 도전과 실행으로 대상을 받을 수 있었고 성공한 창업가로 성장해 창업을 꿈꾸는 동서인들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자신의 소감을 밝혔다. 이번 대회의 상을 직접 수여하기 위해 시상자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함께 간단한 정담회를 가졌다. 실전창업 경진대회를 위



▶실전창업경진대회 발표하는 모습

해 약 1년간 자신들이 아이디어를 연구하고 개발한 학생들에게 정제국 총장은 "혁신적 창업교육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생각을 넣어 상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인재, 기업이 정신과 창의성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우리만의 고유 창업 지원 플랫폼을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창업가를 배출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제국은 창업 지원단장은 "실전창업 경진대회는 실제 스타 창업가를 발굴하기 위한 과정이다. 동서대학교는 초기 창업 패키지, 실험실 창업, 메이커 교육 등의 창업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고 있다. 대학의 과학적인 창업 지원 장학금이 앞으로 창업 시드머니로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믿는다. 전국 최고 수준의 창업인프라를 활용해 우수한 스타트업들을 계속 육성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창업지원단은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창업 모델을 요구하는 현대 사회에 맞춰 건설적인 그룹을 활용하여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한다. 다양한 이론과 실무 교육을 통해 창업은 꿈꾸는 모든 예비창업자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대학 창업지원단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



▶실전창업경진대회 발표하는 모습

우리 대학은 'Easy Start Up'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실전창업프로젝트 ▲Biz-Make 창업동아리 ▲LEGO 창업아카데미 ▲해커톤 경진대회 ▲실험실 창업 페스티벌 ▲PASTEL 창업동아리 등 8개의 창업교육과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들의 창업을 돕기 위해 매년 노력해왔다. 초기 창업 패키지, 실험실 창업 이노베이터 육성사업, 실험실 특화형 창업인도대학 등 100억 원 이상의 정부 사업에 참가하여 광안리 아쿠아 팰리스에서 개최된 '2020년 부산벤처 창업 페스티벌'에서 중소 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부산벤처 창업 페스티벌은 예비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등의 사업과 관련하여 공로를 인정받아 서로의 성과를 공유하는 부산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행사이다. 정제국은 동서대 창업 지원단장은 "동서대 창업지원단은 오늘 수상한 이수영 매니저뿐만 아니라 전원이 창업전문가이다. 앞으로 우리 대학은 창업 지원역량의 역량 강화를 위해 더욱 많은 투자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해 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윤진 기자 youjin6244@gmail.com

■ 학과별 Q&A 인터뷰 - 김대민 책임교수

미래를 공부하는 ICT융합공학부

Q.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평생교육 단과대학 미래커리어대학의 ICT 융합공학부 책임교수 김대민입니다.

Q. ICT 융합공학부는 이름만 듣기에 조금 생소한데요. 주로 어떤 것을 배우는 곳인가요?
A. 미래 커리어 대학은 평생교육지원 체제의 지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 단과대학으로 30세 이상의 학업을 원하는 모든 분들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3년 이상의 재직 경력이 있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평생교육원이나 학점은행제와는 다양한 혜택과 학위수여 등의 측면에서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4년간 주중 야간과 토요일 수업을 통해 학점을 이수하게 되면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ICT 융합공학부는 ICT 융합 전문가 및 메이커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학문입니다. 3D 설계 또는 3D 프린팅을 다루는 기계설계 역량, 회로설계 및 PCB 제작 등의 전자회로설계 역량, 프로그래밍을 통한 제어시스템 구축 및 개발하는 제어시스템 설계 역량, 그리고 앞서 설명한 역량들을 기반으로 창의융합제품설계 역량을 갖춘 실용적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 ICT 융합공학부가 속해 있는 미래 커리어 대학은 주로 직장에 다니시는 학생 분들이 많은데 그로 인해서 다른 과와 달리 미래 커리어 대학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수업 방식이 있나요?
A. 미래 커리어 대학은 앞서 말씀드린 전형으로 인해, 재직자들이 많이 재학 중입니다. 재직자 분들은 수업을 다양한 경험과 특정 분야에 숙달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특정 수업에서 이론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들 외에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노하우나 특정 기술 등에 대해 관련 수업에서 교수자가 되어 동기 학생

들에게 전달해 주는 '나도 교수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 사이의 수준 차이가 극명하다 보니 수준별 수업이 운영되며 동시에 멘토/멘티를 활용한 수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게 됩니다.

Q. ICT 융합공학부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가요?
A. ICT 융합공학부는 다양한 직종의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점을 학업을 통해 서로의 특징을 파악하여 서로를 채워나갈 수 있는 장이 자연스레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학생이 재직 중인 회사의 기술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기도 하고, 서로에게 개인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기도 합니다. 단점은 직장인이 대부분이다 보니, 토요일 수업에 일이 많아 결석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간 수업, 녹화 수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Q. 주로 과를 졸업한 뒤에 학생들의 진로는 어떻게 되나요?
A.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의 업그레이드 또는 자신의 업무와 유사하면서 처우가 좋은 기업으로의 이직 등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으며, 메이커 강사, 4차 산업분야와 안전분야의 교육 강사 등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새로운 분야의 창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Q. 이 인터뷰를 보고 ICT 융합공학부의 매력과 앞으로 이 전공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격려하는 다양한 경험과 특정 분야에 숙달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특정 수업에서 이론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들 외에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노하우나 특정 기술 등에 대해 관련 수업에서 교수자가 되어 동기 학생

임주는 수습기자

해외취업자 108명으로 전국 2위 기록

2021년 K-Move스쿨 4년제 대학 최다 6개 과정 선정

순위	대학	2020	2019	2018
1	부산외국어대학교	128	123	119
2	동서대학교	108	100	111
3	경성대학교	77	64	58
4	동아대학교	59	58	53
5	백석대학교	45	41	32
6	동일대학교	44	60	55
7	한국외국어대학교	41	50	32
8	계명대학교	41	23	30
9	배재대학교	34	44	27
10	신라대학교	34	45	52

▶해외취업 전국 상위 10위 대학

▶자료출처 - 교육부(대학알리미)

우리 대학은 2020년 해외취업 배출 대학 2위를 차지했다. 교육부의 '졸업생 취업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 111명, 2019년 100명을 배출하고 2020년은 108명을 기록했다. 또한 2019년 해외취업 연수사업 운영 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2017년~2019년 3년 연속 A등급을 받았으며 2021년 K-Move스쿨 전국 4년제 대학 중 최다 6개 과정에 선정됐다. 학생 취업지원처장은 "부산 출신 인제가 같은 국가에 있지만, 서로 플라 같은 대학 출신끼리만 소통하는 경향이 있다. 시가 현지 진출 청년의 현황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정착 방법과 생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지역 대학을 졸업하면 해외에 제대로 인착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 해외 진출을 꿈꾸는 전국의 많은 교교생이 부산으로 몰릴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취업과 관련하여 학생취업지원처 해외취업지원팀 김경미 총괄담당과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해외취업 전국 2위, 운영 기관 평가 3년 연속 A등급을 받았는데 이를 위해 노력한

점이나 이러한 결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본교는 2004년부터 십여 년간 해외취업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축적된 노하우로 해외 우수 기업체와 네트워크를 맺고 있으며 담당 교수와 직원이 현지 기업들을 직접 방문하여 구인 수요를 파악하고, 취업한 졸업생들이 현지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글로벌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저학년부터 체계적인 해외취업 로드맵 구축 및 취업자 대상 체계적인 사후관리 환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운영 기관 평가에서 3년 연속 A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학년부터 해외취업에 대해 알아가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해외취업 로드맵'을 제공하고 있으니 단계별로 준비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공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외취업지원팀의 국가별 담당 직원과 상담이 가능합니다. 해외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준

R	E	A
1학년	2학년	3학년
해외취업 설명회 해외연수프로그램 (교과) 해외취업과 진로 (교과)		
D	Y	
4학년	졸업	
K-Move스쿨 DSU해외취업 해외현장실습 (교과)	해외취업 사후관리 해외네트워크구축	

▶'M READY 시스템에 따른 학년별 해외취업 로드맵

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본인의 해외취업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진로, 전공, 역량 등을 고려하여 희망하는 국가와 직무를 선택한 후에 해당 국가의 취업전략, 채용동향 등을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외국어 능력과 경력 자격증 준비입니다. 요구되는 외국어 능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선 도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영어권이 아니라도 기본적인 영어회화 실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 일본의 경우는 일어 능력(JLPT) N2 이상 취득이 필수입니다. 베트남의 경우 베트남어가 부족하더라도 영어나 직무역량이 우수하다면 취업하기 유리합니다. 또한 직무 및 산업군에 따라서 전공별 국가 기술 자격증이나 공인 직무 자격증,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된 경험이나 경력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취업의 의지와 성실한 태도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자질입니다. 평생시에도 건강관리에 힘을 쓰고 성실한 생활을 하도

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으로 K-Move스쿨 운영 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특히 전공 4년제 대학 중 최대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주목할 만한 점이다. K-Move스쿨은 고용노동부 핵심 청년고용정책 가운데 하나로 열정을 가진 청년들에게 해외 진출을 돕는 해외 취업 연수사업이다. 미국 패션스페셜리스트 양성과정, 미국 그래픽디자인 양성과정, 미국 무역물류 프런티어 양성과정, 미국 IT 엔지니어 양성과정, 일본 IT 엔지니어 양성과정, 베트남 경영지원 전문 인력 양성과정 등이 있다. 4학년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2021년 4월부터 모집을 시작한다. 내년 1월까지 직무, 어학, 소양 등의 교육을 진행한다. 국내의 교육비, 교재비, 비자 수수료 일부, 항공료 등의 주요 혜택과 해외취업 정착 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훈련수당 등의 추가 혜택이 있다. 이윤진 기자 youjin6244@gmail.com

건축공학과의 대거 취업

기업들이 선정한 건축·기계 분야 최우수학과 선정



▶우리대학 건축공학과

2020년대 한 해에 본교 건축공학과 학생들이 대거 취업하였다. SH 서울 주택도시공사(김선중), 부산교통공사(박준현), 부산시 건축직(김태강), 한국시설안전공단 6급(최호진)의 4명이 전공과 관련하여 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그 외에도 현대건설(권태환), 롯데건설(김준호), 삼성물산(박준영), 동양건설(차용평), 현대엔지니어링(하동훈, 우창형) 등 많은 학생들이 대기업 취업에 성공했다. 이번만 아니라 베트남(엄석현)과 일본(김성민)에도 각각 1명씩 진출하면서 해외취업의 부분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통용 학과장은 "학생들의 취업성공이 이어지면 건축공학과와 강력한 브랜드는 모든 분야에서 프리미엄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2021년에도 건축공학과와 무한한 노력과 진심을 담아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0년 산업계 관심 대학 평가 결과 건축 분야 12개, 기계분야 13개, 총 25개의 최우수 학과로 선정됐는데 건축공학과가 이에 선정됐다. 이 외에 재학생 약 8명이 현대 그룹 계열사 신규채용을 조건으로 한 취업연계과

정을 이수했다. 지난 3월에는 현대건설기술교육원과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해 '건설 전문 인력양성 트랙'을 공동 운영했다. 2020년도 상반기 프로그램을 통해 8명이 수료했다. 동서대 교내 현장시스템(IFPS, In-school Field System)을 이용하여 멀티 가상 원격강의를 최초로 실행했다. 이 트랙을 통해서 국내·외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으로의 취업도 지원하고 있다. 미래교육 시스템을 적용하여 운영하는 LINC+사업단의 '핵심역량 ALLSUN 산학 트랙'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는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인재 양성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대수 LINC+사업단장은 "본 성과를 바탕으로 교내 IFPS 공간을 활용한 실무형 원격 화상 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애프터 코로나(After Corona)를 대비한 미래형 교육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윤진 기자 youjin6244@gmail.com

책 속의 풍경 - 메타버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 책 제목 : 메타버스
• 책 저자 : 김상균
• 출판사 : 플랜비디자인

우리는 오늘날 메타버스, 디지털 지구 안에서 살고 있다. 메타버스란 초월,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세계,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를 합친 '현실을 초월한 가상의 세계'를 의미한다. 그래픽을 처리하여 모니터에 보여주는 장치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세계적인 기업 '엔비디아'의 창립자이자 CEO인 젠슨 황은 '메타버스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 책을 읽어야 한다.

이 책에서는 디지털 지구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대표적인 네 가지의 메타버스에 대해 다양한 예를 들며 소개하고 기업체들이 메타버스를 어떻게 개척하거나 잘 활용지에 대해 제안한 후 메타버스에 대한 저자의 솔직하고 비판적인 시선을 던진다.

저자는 메타버스의 4가지 세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먼저 증강현실 세계에는 세 가지의 방식이 있다. 첫 번째로 현실 모습 위에 가상의 물체를 입혀 보고 상

호 작용하는 방식으로,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게임 '포켓몬고'와 2018년에 방영한 드라마 '얽힘브라 궁전의 추억'이 있다. 두 번째로는 현실의 물리적 공간에 어떤 기계장치나 설치물을 놓고 판타지를 현실 공간에 보여주는 방식으로 핀란드에서 화이트 크리스마스 머신에 눈을 넣으면 싱가포르에서 눈이 내리는 코카콜라의 'Share a White Christmas' 광고를 예시로 든다. 세 번째로는 현실 세계를 배경으로 한 새로운 세계관 스토리로 상호작용하는 규칙을 만들고 참가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즐기는 방식으로 아외로 나온 방 탈출 카페와 호주의 아트 시리즈 호텔이 홍보를 위해 기획한 절도 게임 '스틸뱅크'를 예시로 든다.

다음으로 라이프로그 세계는 자신의 삶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기록하여 저장하고 때로는 공유하는 활동으로 우리는 오래전부터 라이프로그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바로 소셜 미디어 서비스다. 책에서는 소셜 미디어 메타버스에 우리의 삶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이유에 대해 '타인과 연결해 주는 소셜 미디어의 기본 특성을 볼 때 자신이 겪은 좋은 일'에 대한 인정이나 축하, 나쁜 일에 대한 위로나 격려를 받고 싶은 마음이라 생각합니다'라고 한다. SNS에 무언가를 올리면, 타인이 내게 반응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도파んに 분비되며, 실제 타인이 내가 기대했던 반응을 보여줄 경우 엔도르핀이 분비되며 행복감을 느낀다고 한다. 저자는 인간의 보상 기대 시스템의 근본 특성에 큰 변화가 없는 이상 소셜 미디어 형태의 라이프로그 메타버스는 계속 번성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세 번째로 거울 세계는 실제 세계의 모습과 정보와 구조 등을 가져가서 복사하듯이 만들어 현실 세계에 효율성과 확장

성을 더해 만들어졌다.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과 구글 어스, 네이버 맵 등이 있다. 책에서 이탈리아의 신경 심리학자의 실험을 통해 '거울 신경 세포'를 발견했다고 한다. 거울 신경 세포는 사람들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한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따라 하며 배우는 과정과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그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 등이 거울 신경세포와 관련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가상세계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다른 공간, 시대, 문화적 배경 등을 디자인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신 세계를 말한다. 수많은 게임이나 미래를 다루는 영화나 드라마의 배경이 가상세계다. 저자는 사람들은 가상세계에서 자신의 본래 모습이 아닌 아바타를 통해 무언가를 한다고 이야기한다. 가상세계의 세계관, 철학, 이야기 등을 통한 탐험을 즐기는 것이다. 또 현실 세계에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과 소통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세운 계획에 따라 무언가를 이루거나 얻으면서 성취감을 느낀다고 한다.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메타버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이것이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책에 나와있듯이 메타버스가 낙원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저자는 메타버스의 활용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지만, 메타버스가 우리의 삶을 대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다. 우리는 충분히 메타버스를 이용하고 누릴 수 있지만 삶이란 현실에 기반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삶의 시작과 끝인 탄생과 죽음을 메타버스에 담기는 힘들다고 이야기한다. 현실이 존재하기에 메타버스도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달의 영화 -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서



• 영화 제목 :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
• 영화 감독 : 실베 쇼페

영화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은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의 대표작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원작으로 한 프랑스 영화이다. 이 영화의 감독이자 예니 메이션 감독으로 유명한 실베 쇼페의 첫 실사영화이며, 아름다운 연출과 노래로 엄청난 극찬을 받았다.

이 영화는 아빠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아기의 시선으로 시작한다. 아기 '폴'의 기억 속에는 슬퍼하는 엄마와 그런 엄마를 괴롭히고 자신에게 소리를 지르는 아빠밖에 남아있지 않다. 어른이 된 폴은 항상 꿈에서 그 기억이 되풀이된다. 그런 아빠를 기억하고 싶지 않아 부모님의 사진 속에 있는 아빠는 오래내어 따로 박스에 넣고 엄마의 사진은 앨범에 보관하고 있다. 부모님이 죽은 후에 두 부모가 폴을 세계적 피아니스트로 키워내고 싶어 하며 매일같이 피아노를 연습시켰지만, 현실은 댄스 교습소를 운영하는 두 부모들을 따라 갈 수 없는 표정으로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이 일상이다.

어느 날 폴은 우연히 장남인 피아노 조율사를 따라 마담 프루스트의 집에 가게 되고 폴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다. 프루스트의 집에는 바닥을 뜯어 만든 작은 뒷밭이 있었다. 프루스트는 예기치 못한 손님이 폴에게 차와 마들렌을 주며 호의를 베풀고 폴은 그녀와 조율사와의 대화를 하다 갑자기 깊은 잠에 빠지게 된다. 그 사이 프루스트는 폴의 집 옆쇠를 훔친다. 잠에서 깬 폴은 프루스트의 집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기억이 사라진 상태였다.

다음날 폴과 이모들이 나가는 모습을 본 프루스트는 폴의 집으로 향한다. 폴의 방을 살펴보고 폴의 책상에서 엄마를 무척 그리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폴에게 '엄마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는 의심심한 한 메시지와 함께 엄마를 찾고 싶다면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라는 메모를 남긴다. 프루스트는 폴에게 기억은 음악을 좋아하는 아들이 하며 기억을 '건져내는 일'을 할 것이냐 제안한다. 폴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며 어린 적 그가 자주 들었던 음악과 그녀가 준비한 허브차와 마들렌을 통해 잃어버린 유년시절의 기억들을 꿈속에서 마주하게 된다.

폴은 허브차를 마실수록 부모님에 대한 기억들을 떠올리고 엄마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다. 폴의 엄마는 피아니스트라는 집안 내력에서 벗어나 자유를 택했으며, 폴 또한 그렇게 키우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둘은 행복했다는 것이다. 폴이 어릴 적 부모님을 잃자 이모들이 아빠에 대한 부당한 기억들을 심어주었고, 프루스트를 통해 아빠를 향한 자신의 미움이 조작된 기억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한편 폴의 이모들이 외출을 잘 하지 않던 폴이 항상 시간에 맞춰 나가는 모습 이상함을 느끼며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빠지게 된다. 어느 날 폴의 집에 방문한 피아노 조율사가 폴과 프루스트에 대한 대화를 하다가 폴이 잠깐 자리를 비웠지만 그것을 알지 못했던 피아노 조율사는 집에 돌아온 이모를 앞에서 프루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이모들은 조용히 나와 곧장 프루스트의 집으로 찾아가 그녀를 괴롭힌다. 프루스트는 폴에게 긴 여행을 떠난다는 편지와 함께 잃어버린 기억을 찾기 위한 재료인 허브차와 마들렌을 남기고 사라진다.

폴은 자신을 피아니스트로 만들기 위한 이모들의 노력에 따라 콩쿠르에서 1등을 하게 되고 그날 집으로 돌아온 폴은 허브차를 마시고 부모님이 이모들이 치고 있던 피아노가 부모님 위로 떨어져 죽게 되었고, 그 피아노가 자신이 매일같이 연습했던 피아노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에 분노한 폴이 피아노를 내려치자 건반 뚜껑이 내려앉게 되며 손가락을 다쳐 다시는 피아노를 칠 수 없게 된다. 어느 날 프루스트가 암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폴은 평소 애용하던 우물썰레를 들고 그녀의 무덤에 찾아가다. 폴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미소를 짓게 된다. 그 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일인 우물썰레 강사를 시작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는데, 자신의 아이에게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를 한다. '아빠'

기억은 주관적이라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하지만, 트라우마는 반대로 더 뚜렷해진다. 하지만 트라우마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도로 심해지면 우리의 뇌는 트라우마를 강제로 해리시켜버린다.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은 다소 무거운 주제에 대한 영화지만, 따뜻한 색채와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준다.

새내기를 위한 슬기로운 대학생생활

코로나로 변한 대학생생활을 보내는 법



▶ 화상회의의 이미지

▶ 사진출처 - 캐시 슬라이드 어플



▶ SNS

▶ 사진출처 - 광주일보

자유롭고 낭만적인 캠퍼스 라이프를 꿈꿨을 새내기들에게는 슬픈 소식이지만 학교에 직접 가서 수업을 듣는 것보다 온라인을 통한 수업 일수가 더 많을 것이라 예상된다. 일반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지 마냥 기다리기보다 온라인 수업으로 시공간 제약이 줄어 여유가 생긴 이 시기를 잘 활용하여 기회로 바꿀 필요가 있다. 다양한 경험을 쌓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활동들을 알아보자.

#선배와 동기를 만날 수 있다. 동아리
온라인으로 많은 수업을 진행한다고 해도 동기와 선배들과 만날 기회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동아리 가입을 통해 수업에서 얘기하지 못했던 선배와 동기들과도 만나서 대화할 수 있으며 학교 정보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다.

우리 대학의 예술문화 동아리는 교내외 교류 행사, 정기 공연을 하는 ▲열라이브 ▲미디어스 ▲언플러그드 음악 동아리와 ▲마하 연극 동아리 ▲피가랍 여행 동아리 ▲BLACK 댄스동아리 ▲에소리 전통문화 예술연구회 ▲인피 만화 동아리 ▲타키온 흑백사진 동아리 ▲필름웍스 영상 동아리 ▲한포바기 문학 비평 동아리가 있다.

봉사활동 동아리에는 ▲더불어사는세상, ▲라포 봉사동아리 ▲백악 로타렉트 연합 봉사동아리 ▲CAN 컴퓨터 학술동아리 ▲DFLC 주시투자 동아리 ▲메카 마이크로

로봇연구동아리 ▲일본연구회 일본문화연구동아리가 있다.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한 스포츠 동아리에는 ▲DASH 축구 동아리 ▲HOOK ▲웍스(Jocks) 농구 동아리 ▲검도 동아리 ▲골프터블링동아리 ▲레드록스 배드민턴 동아리 ▲레블루션 스키동아리 ▲블루블린스 미식축구 동아리 ▲안전제일 보드 동아리 ▲ACE 야구 동아리 ▲여울 태권도 동아리가 있다.

기독교 정신의 구현이라는 건학 이념에 따라 우리 대학은 ▲예수전도단(YWAM), 학생신앙운동회 ▲SFC, 미전도 종족 전문인 선교단체 ▲인터콜, 채플 찬양팀 ▲V.I.C, 부산의 7개 캠퍼스가 연합하고 있는 ▲D.S.M 동아리가 있다.

재밌어 보이는 동아리에 들어가 활동하는 것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선배와 동기들과 함께 배우고 전해질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대학생생활을 즐기는 좋은 방법이다.

#SNS가 스펙으로? 나도 인플루언서!
SNS의 영향력이 커진 현재, 코로나로 온라인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SNS 활용이 적극적이고 능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외활동이 많아지고 있다.

대외활동별로 장학금이나 자사 취업 시 가산점, 서류면제 혜택을 주는 곳도 더러 있어 자기소개서에서도 활용이 가능하게

때문에 이러한 대외활동은 취업 시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성적, 자격증 등을 넘어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는 취업준비 시대에 대외활동 모집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기자단, 홍보단, 서포터즈, 기획단 등 많은 활동이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고 특히나 콘텐츠 제작에 SNS로 홍보하는 활동들이 많아졌다. 때문에 콘텐츠 제작 능력을 SNS로 보여줄 수 있다면 대외활동에 뽑힐 가능성도 높아진다. 대면 만남이 어려운 시대에 위협요소를 낮추고 스펙은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니 만큼 학교 등록이 어려워졌다고 낙심하지 말고 시간 제약이 줄어든 지금의 기회를 활용해 새내기 때부터 SNS를 관리하여 종합적인 소통 매체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면 큰 장점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새로운 교유의 장! 랜선 만남
학교가 비대면으로 운영되면서 학생회와 연구회, 문화행사 등 캠퍼스를 다채롭게 만들었던 학생 자치 활동이 어려움을 겪고 그에 따라 학생들의 교류가 단절이 됐다. 특히나 새내기들의 소속감은 저하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많은 대학에서 ZOOM, 페이스북 타임, 구글 미트 등 화상회의 서비스를 통해 소통하는 방법을 택했다.

화상회의 서비스는 학생들의 새로운 교류의 장이 되며 막혔던 소통의 길을 열어

주었다. 이런 서비스는 학생들만이 사용하는 게 아니다. 학교 수업, 회사 업무 등에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우리 대학도 코로나로 대면 수업이 어려워지면서 ZOOM 등을 활용해 수업을 이어갔으며 수업뿐 아니라 팀별 과제, 자치기구 활동도 화상회의 서비스로 많이 진행했다.

새내기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해 직접 나서서 미리 학생들과 소통을 하고 비대면 만남을 가진다면 화상회의 어플을 다루는 방법도 익혀 아색하지 않게 수업에서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코로나가 완화돼 대면 수업을 맞았을 때도 화상회의를 통해 인연을 맺어두었기 때문에 첫 등교가 아닌 긴 방학을 맞았던 첫번째 친구들과 만나 어울릴 수 있을 것이다.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없어지는 날을 기다리지만 말고 공중에서는 생각으로 격려하는 시대에 맞게 화상회의, 방구석 콘서트, AI 홀트레이닝, 등 많은 새로운 것들에 익숙해지고, 코로나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기개발을 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보면 언젠가 다시 맞을 마스크 없는 세상에서 발전을 이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출처 : 네이버 카페 스펙업 김경은 기자 ymacom10@gmail.com

축제·공연 소식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미완성 음악회 II
• 기간 : 2021. 03. 10. (수)
• 장소 : 부산문화회관
• 주최 : (재)부산문화회관



제209회 부산 시립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 기간 : 2021. 03. 18. (목)
• 장소 : 부산문화회관
• 주최 : (재)부산문화회관



BSCC 인문학 콘서트 2021
봄 시즌 DR. G.R.F.M.
• 기간 : 2021. 03. 26. (금)
• 장소 : 부산문화회관
• 주최 : (재)부산문화회관



부산 시립무용단 신년기획 특별공연
• 기간 : ~2021. 03. 20. (토)
• 장소 : 부산문화회관
• 주최 : (재)부산문화회관



제572회 부산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 기간 : 2021. 03. 12. (금)
• 장소 : 부산문화회관
• 주최 : (재)부산문화회관



소몰리에
• 기간 : ~2021. 03. 14. (일)
• 장소 : 데몬트리 소극장
• 주최 : 극단 마루



부산 클래식 음악제
• 기간 : ~2021. 03. 17. (수)
• 장소 : 금정문화회관
• 주최 : 부산일보사, 금정문화회관 외

잊어서는 안 되는 ‘서해수호의 날’

그 날을 떠올리며



▶서해수호 55용사 흉상 부조



▶연평도 포격 사진

▶사진출처 - BBC 코리아

매년 3월의 넷째 주 금요일은 서해수호의 날이다. 서해수호의 날이란 제2연평해전, 천안함 침몰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 서해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55명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날로, 6·25전쟁 이후 끊임없이 지속되어온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상기하고 국가 안위의 소중함과 국토 수호 결의를 다지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서해수호의 날은 국민의 안보의식을 북돋우며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하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평화통일의 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는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서해수호의 날은 기념일의 명칭뿐만 아니라 기념일과 행사 장소 모두 의미가 담겨있다. 먼저 3월 넷째 금요일인 이유는 우리 군의 희생이 가장 많았던 천안함 피격일을 기준으로 삼았고 서해수호 3개 사건의 전사자인 서해수호 55용사 모두가 안장된 곳인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다. 서해수호 55용사는 전

안함 피격으로 숨진 46명과 순직한 故 한주호 준위, 연평도 포격으로 희생된 2명 그리고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6명을 말한다.

#제2연평해전(2002)

제17회 월드컵 축구 대회의 마지막 날을 앞둔 2002년 6월 29일, 대한민국 축구팀이 터키 축구팀과 3, 4위 결정전을 벌이던 오전 10시 25분 무렵 서해 연평도 해상(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3마일, 연평도 서쪽 14마일 해상)에서 남북한 해군 간에 전투가 벌어졌다. 이는 1999년 6월 15일 오전에 발생한 제1연평해전이 벌어진 지 3년 만에 같은 지역에서 일어난 남북한 함정 사이의 해전이다.

이날 오전 9시 54분, 북방한계선 북한측 해상에서 북한의 꽃게잡이 어선을 경계하던 북한 해군 경비정 등산포 684호정과 육도 388호정이 연평도 서쪽 7마일 해상에서 북방한계선을 침범하면서 계속 남하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응하여 남한 해군이 남한 해군 고속정 253편대(잠수리 357, 358호)를 즉각 출동시켜 경고방송을 하고 교전 대비태세를 취하며 접근했다. 하지만 아무런 징후도 없이 북한 경비정이 갑자기 선제 기습 포격을 가해 급급 차단을 실시하던 해군 고속정 잠수리 357호에 85mm포를 발사하면서 잠수리 357호의 조타실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다. 이때부터 양측 함정 사이에 전투가 시작되고, 곧바로 인근 해역에 있던 남한 해군 제2연평해전 잠수리급 경비정 4척을 투입해 대응사격을 실시했다.

오전 10시 43분경 집중 포격으로 크게 격파된 북한 경비정 1척에서 화염이 발생하자 나머지 1척과 함께 퇴각하기 시작했다. 약 7분 후, 오전 10시 50분경 북방한계선을 넘어 북상함으로써 약 30여 명의 교전 끝에 남한 해군은 북방한계선을 사수하고 제2연평해전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북한의 기습적 포격으로 인해 잠수리 357

호 고속정은 예인 도중에 침몰했다. 한국 해군 용영하 소령, 한상국 상사, 조전형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까지 6명의 해군 승조원들이 전사하고 1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한편 북한은 약 3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S-O-1급 초계정 등산포 684호가 반파된 채로 퇴각했다. 교전 직후 국방부는 ‘북한의 행위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며, 묵과할 수 없는 무력도발’로 규정하고 북한측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강하게 요구했으나, 당시 북한 쪽의 답변은 듣지 못했다.

이 사건이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과 남한이 교전한 2002년 6월 29일의 해전이다. 2008년 이전까지 ‘서해교전’이라고 불리던 것을 2008년 승전의 의미에서 ‘제2연평해전’으로 격상했다. 2012년 6월에는 제2연평해전 10주년을 기념해 용영하함, 한상국함, 조전형함, 황도현함, 서후원함, 박동혁함 등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6용

사를 합병으로 한 유도탄고속함(PKG) 6척이 서해 합동 해상기동훈련에 참가했다.

#천안함 침몰 사건(2010)

제1연평해전에도 참가했던 천안함이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 20분경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북한 해군 잠수함의 어뢰에 의해 침몰된 사건이다. 사건 발생 직후 출동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해안경비정에 의해 천안함에 탑승하고 있던 승조원 104명 중 58명이 구조되었지만, 이창기 준위를 비롯한 대한민국 해군 장병 40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됐으며 구조 과정에서 한주호 준위가 순직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천안함의 침몰 원인을 규명할 민간·군인 합동조사단을 구성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스웨덴, 영국 등 5개국의 전문가 24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2010년 5월 20일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조사 결과 발표는 미국과 유럽 연합, 일본 외에 인도 등 비동맹국들의 지지를 얻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안건으로 회부됐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천안함을 공격했다’는 조사 결과에 비추어 우려를 표명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공격을 규탄한다’라는 내용의 의장 성명을 채택했다.

그러나 북한은 “특대형 모락구”이라며 자신들과 관련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했다. 또한 천안함의 침몰에서 인양, 조사 발표까지 대한민국 사회와 주변국의 관심을 끌었으며, 침몰 원인에 여러 주장이 제기됨과 동시에 규명 과정에서 언론과 각계 인사들은 다수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침몰 원인에 대해 각기 다른 해석으로 갈등을 빚었다.

#연평도 포격 사건(2010)

2010년 11월 23일 오전 8시 20분, 북한은 남포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단장 명의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 영해에 대한 포 사격이 이루어질 경우 즉각적인 물리적 조치를 경고한다”라는 통지문을 발송했다. 당시 국방부에서는 훈련 중단 요청을 거절하고 예정대로 오전 10시 15분부터 약 4시간 동안 연평도의 해병대가 3,657발의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연평도 해병대의 공격 훈련이 종료된 지 10분 후인 오후 2시 34분경 북한은 연평도 군부대 및 인근 민가를 향해 포탄 170여 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최초 포격이 있자, 첫 포격의 13분 후인 오후 2시 47분경부터 대응 포격을 시작해 북한을 향해 80여 발을 발사했다.

그 후 대한민국 국군은 서해 5도에 진동계 하나를 발령한 뒤, 곧 전군으로 진동계 하나를 확대 발령했다. 대한민국 공군은 KF-16 2대를 긴급 출격시키고, 추가로 KF-16 2대와 F-15K 4대를 출격시켰다. 이후 오후 3시 40분경, 북한의 공격이 중단됐다.

대한민국의 해병대원 2명이 전사하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민간인은 2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당했다. 인명 피해와 더불어 각종 시설 및 가옥 파괴로 재산 피해를 입었다.

1953년 7월 휴전협정 이후 북한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직접 타격하여 민간인이 사망한 최초의 사건으로 민간을 상대로 한 대규모 군사 공격으로는 첫 사례다.

이 사건은 국제 사회의 큰 관심을 끌었다. 당시 국제 사회는 북한을 규탄했으나, 북한은 정당한 군사적 대응이었다고 전적 인 책임을 대한민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천안함 침몰 사건에 이어 8개월 만에 벌어진 이 사건으로 인해 양측의 갈등은 더욱 심화됐다.

이후 2010년 11월 28일~12월 1일 서해 인근 우리 영해와 공해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이 실시됐으며, 12월 2일에는 연평도에서 사격훈련이 실시됐다.

자료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위키백과 조수연 수습기자

3.8 의거, 3.15 의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

과거는 현재를, 현재는 미래를 안고 있다



▶경찰에 맞서 싸우는 3·8 민주의거 학생들

▶사진출처 - 국민일보



▶피켓을 들고 마산 경찰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마산상고 시위대 모습

▶사진출처 - 경남신문

3·8 민주 의거

1960년 이승만 정부의 독재와 부정 부패, 인권유린에 대한 학생운동이다. 1960년 3월 8일 대전시 공설 운동장에서 야당 부통령 후보인 장면 박사의 선거 개표와 때를 맞추어 경찰의 저지를 뚫고 대전 고등학교 1000여 명의 학생이 독재 타도와 학원의 자유를 외치며 시민들의 환호 속에 격렬하게 시위를 전개한 것이다.

3·8 민주 의거 경과

본래 대전 시내 고교생들이 연대하여 시위에 참가하기로 했지만 사전 발각되어 경찰의 극심한 저지를 받는 가운데 보문고등학교는 3월 9일부터, 대전공업고등학교는 3월 10일부터의 학기 말 시험으로 시위를 봉쇄했으며 9일에는 또 경찰에서 대전고, 대전상고, 대전공고, 보문고 등 4개 학교 학생 대표 24명을 연행 구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일에는 다시 대전상고고등학교 학생 600여 명이 자유당의 그릇된 정 부통령 선거 전략을 규탄하고 구속 학생 석방을 요구하며 학원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열렬한 시위를 감행했다. 대전여고, 대전사범학교, 호수문여고 등은 경찰 감시 하에 교외 진출이 저지됐다.

도 불구하고 10일에는 다시 대전상고고등학교 학생 600여 명이 자유당의 그릇된 정 부통령 선거 전략을 규탄하고 구속 학생 석방을 요구하며 학원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열렬한 시위를 감행했다. 대전여고, 대전사범학교, 호수문여고 등은 경찰 감시 하에 교외 진출이 저지됐다.

시위 과정에서 부당한 폭력을 당하다

시위가 진행되면서 100여 명의 학생이 연행 구속되어 고초를 당했으며 수많은 학생들이 총 개머리관과 방망이로 얻어맞았고 교복, 교모, 신발, 소지품 등을 잃어버린 물건이 수없이 많았다. 또한 논바닥에 가두어 놓은 인분통에 빠지고 넘어져 곤경에 처하거나 상처가 난 경우도 허다했다. 한 달 이상을 피신했던 학도호국단 간부들도 있었고, 부상으로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지는 학생도 많았다. 특히 두 명의 교사(대전고 조남호, 금중철)가 수갑을 차고

공분 세례를 받으며 경찰서에 연행됐다. 또한 경찰 방망이로 맞아 교막이 터지고 평생 불구의 몸으로 살아가는 처절한 인생(대전고 송병준)도 있었다.

3·8 민주의거의 의의

3·8 민주의거는 1960년 3월 8일부터 3월 10일까지 자유당 독재 정권의 부정 부패, 불법적 인권유린에 대항하여 대전지역 고등학생들이 민주와 자유, 정의를 위한 순수한 열정으로 불의에 항거한 민주화 운동이다. 3·8 민주의거는 충청권 최초의 학생 운동이며 지역 민주화운동의 효시로 역사적 교훈과 가치가 크다. 대구의 2·28, 마산의 3·15와 함께 4·19 혁명의 단초로서 중대한 의의를 새길 수 있는 것이다.

3·15 의거

1960년 이승만 자유당 정권에 3·15 부정 선거에 반발하여 마산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위로, 4·19혁명에 도화선이 된 사건이다. 4월 11일 시위 중 실종된 김주열 학생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마산 앞바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2차 시위로 이어졌고 이후 부정선거 규탄시위가 전국단위로 확산되면서 4·19혁명으로 이어지게 됐다.

3·15 의거의 역사적 배경

이승만 정권은 1954년 영구집권을 위한 ‘사사오입개헌’을 단행한 데 이어 1956년의 정·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당면이 당선되자 국민·야당·언론 등 사회 전반에 대한 탄압의 강도를 높여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1958년에 실시된 제4대 민의원 선거에서의 불법 선거 자행과 더불어 국가 보안법, 지방자치법 등을 개정하여 야당과 언론을 탄압하는 법적 기초를 더욱 강화했다. 이후에도 이러한 독재정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1960년 3월 15일에 실시된 정·부통령 선거는 전국적인 범위에서

광범위한 부정선거로 얼룩지게 됐다. 이에 마산·창원 지역민들의 불만이 대대적으로 폭발하기에 이르렀다.

사건의 발단

선거 당일 변호표가 나오지 않아 투표를 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이 속출한 데 이어 민주당의 투표참관인 다수가 참관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부정선거의 정황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기 시작했다. 이에 민주당 마산시당이 오전 10시 30분경 선거 포기를 선언하고 투표소에 배치되었던 민주당 참관인들을 모두 철수시키는 한편 곧바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 준비에 들어갔다.

1차 의거

3월 15일 오후 3시 30분경 민주당 마산시 당원 20여 명과 1천여 명의 시민·학생들이 ‘민주주의의 만세’를 외쳤다. 남성동 파출소-부림 시장-오동동-수성동-어업조합-불종거리로 행진했으나 오후 5시경 소방차량을 동원하여 빨간 물을 뿌려대기 시작하자 일시 해산했다.

이어 오후 6시경에는 개표가 진행될 예정이었던 마산시청 앞에 모인 군중들에 의해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다시 전개되기 시작하여 순식간에 마산·창원 전역으로 확대됐다. 경찰의 강경 탄압에 대항하는 시민들의 파출소 공격과 경찰들의 총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창원 지역에서는 시민들이 창원 군청을 습격하기도 했다. 이날 밤의 시위로 모두 8명의 사망자와 12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김주열 열사의 시체 발견 그리고 2차 의거(4월 11일~13일)

1차 의거가 발생한 지 27일 만인 4월 11일 오전 10시경 1차 의거 당시 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을 눈에 맞고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김주열 열사의 시체가 마산 중앙부두에서 발견됐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분개한 시민들이 시신이 안치된 도립병원으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경찰서, 5개 파출소, 도립병원 등을 들면서 다시 시위를 전개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인 4월 12일에는 마산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들도 시위를 전개했다. 오전 10시경 마산공업고등학교 학생 500여 명이 ‘민주 정치 되살리자’며 거리로 나선 데 이어 장신 고등학교, 마산여자고등학교, 마산 고등학교 학생들도 합류하여 시가행진을 하다 김주열의 주검 앞에서 묵념하고 일단 해산했다. 이후 오후 7시경에 이르러 시민들이 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와 마산시청을 점령하고 경찰서와 파출소를 공격했으며 시위는 13일에도 계속 이어졌다. 창원 지역에서도 창원 군청 일대를 중심으로 시위가 전개됐다.

3·15 의거의 역사적 의의

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로 일어난 시위로 4·19 혁명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국 현대사에 있어 최초의 민주·민족운동이다.

3·8 의거와 3·15 의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안겨주었는가

대전 학생들이 격렬하게 저항한 3·8 민주 의거는 3·15 부정선거를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주었고 3·15 민주 의거는 4·19 혁명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어 주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역사란 과거가 현재에게 영향을 주고 현재가 미래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사는 과거이며 현재이며 미래다. 과거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과거 인간의 이기심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현재, 미래의 역사에게 우리는 무엇을 안겨줘야 올바른 행동인지를 고민하게 한다.

자료출처 : 창원시 홈페이지 -3·15 민주 의거 3·8 민주 의거 기념 사업회 임주연 수습기자

사설

벌어지는 갈등, 디지털 정보 격차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 맞춰 정보의 다양화는 디지털 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했다. 정보의 다양화로 소통 문화는 다양해졌으며 고차원적이다. 또한 빠른 속도와 낮은 경계성으로, 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계층 간 영유할 수 있다는 큰 특징을 가진다. 예를 들어 인터넷 접근성이나 글로벌한 문화 등이 보편화되고, 다문화인들과도 자유롭게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글로벌한 문화를 창출할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가 빠르게 정착하다 보니 고령층이나 중장년층은 이러한 문화에 적응하지 못해 도태되어 버리는 현상이 생겼다. 예를 들어 온라인상에서 클릭만으로 예매를 할 수 있는 인터넷 예매의 경우, 인터넷 활용 교육을 못 받은 노인에게 직접 찾아가서 신청한다. 이 같은 문제점은 고령층과 청년층 사이의 '디지털 정보 격차'로 이어진다. 도태된 디지털 정보화 수준과 인터넷 활용 교육이 저조한 고령층들은 일자리 축소와 소득 저하 등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을 겪게 만든다.

디지털 정보 격차란 정보 소유 계층과 정보비 소유 계층 간의 격차를 말한다. 이는 컴퓨터가 발전하면 할수록, 인터넷의 효용이 증가하면 할수록 사회계층 간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좋은 컴퓨터를 갖고 있는가, 인터넷 접속은 용이하며 인터넷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가에 따라 삶의 기회와 질이 달라진다는 것으로 본다.

디지털 정보 격차는 소득, 교육, 지역에 따라 점점 심화되는 양상이다. 모바일

의 기능이 단지 전화 통화의 기능이 아닌 소통의 도구와 특히 다양한 정보 습득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는 차이를 넘어 생존권을 위협받는 문제가 됐다. 이는 다양한 정보 습득을 할 수 없는 정보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기회도 요원하기만 하다. 일자리를 위협받는 정보취약계층은 단순히 고령층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9년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4대 정보취약계층으로 고령층뿐만 아니라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이 해당됐다. 이처럼 과도한 언택트 시스템은 디지털 정보 격차의 두꺼운 장벽을 만든다.

이 같은 문제점들에서 기업과 정부는 '사회적 책임'을 필요로 두어야 한다. 사회적 책임 안에서 디지털 정보 격차를 위해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점은 바로 서비스 개선이다. 디지털 정보 격차의 문제점은 대부분 정보 공급 방식에서부터 시작된다. 고령층 인터넷 사용 용도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인들의 인터넷 사용 용도는 이메일 등 개인적인 용무가 가장 많았으며 현재는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모바일 결제나 쇼핑, 엔터테인먼트 등 보다 다양한 서비스 분야를 사용한다.

따라 정보취약계층 사용자의 인터넷 활용 속도(정보 공급량)를 높이려면, 인터넷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공급 방식의 혁신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보를 보다 용이하게 확인하기 위한 부분 확대 기능, 내래

이션 기능 등 시청각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특히 기타 정보취약계층(장애인 등)을 위한 디자인도 역시 별도의 페이지를 구축하는 것보다 하나의 사이트로 통합하여 모든 계층들이 콘텐츠를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음성 정보 중심의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하고,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시각 정보 중심의 콘텐츠가 상용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노력은 디지털 문화를 올바르게 누리며 웹 사용성을 개선하는 발걸음이 된다.

이제는 단순히 인터넷 기기의 가격이나 인터넷 서비스 등의 비용이 저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문화를 누리는 모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전략적 기술'을 알려줘야 한다. 개인이 필요로 하는 양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필요시 하는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 즉 사회 전체의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삶을 편리하게만 만들 줄 알았던 디지털의 개발이 어떤 영향을 미치지 고민해 보고, 앞으로 더욱 넓어질 디지털의 문화 안에서 모든 계층에게 맞춤형 교육과 기술적 지원, 격려 등 정서적·사회적 지지와 정책적인 책임이 수반된다.

이처럼 우리의 노력으로 디지털 격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디지털 문화에 대한 사회 전체의 관심은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을 만들고, 디지털 문화 안에서의 조화를 만든다.

죽비소리

대학은 내가 또 침이라

이재희(광고홍보·2)

대학 생활을 시작하며 느낀 것이 하나 있다면 사람들은 모두 '처음'이라는 단어에 두려움을 품은 채 '처음'에 다가간다는 것이다. 성급한 일반화일까, 부디 그랬으면 한다. 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 처음으로 방문한 학교, 처음, 그리고 또 처음. 처음이라는 단어에 두려움을 품은 채 고민 상담을 해오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지 않은가? 우리는 왜 이리도 두려움을 가질까. 나 또한 처음이라는 단어에 두려움을 가진 채 학교에 입학했다. 사이버 학교에.

두려움은 내 안의 불안을 더 키웠고 불안의 화살은 결국 나를 향했다. 남보다 하는 수감 신경 나만 못하는 거 아냐? 남들 다 하는 실시간 화상수업 나만 못 들어가는 거 아냐? 내가 명정해서? 결국 내가 나를 끌어먹은 것은 아닐까. 성공적으로 1학년을 마친 지금이야 이 글을 쓰며 수고했다 스스로를 다독여줄 수 있는 위치에 섰지만 그때의 나는 정말이지 겁이 나는 걱정 보따리였다. 두 달에 걸친 한 달이씩을 매달고 매 하루를 시작하기에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은 어쩌면 당연지사였다. 처음이라 익숙한 것은 당연이다. 그래서 신입은 그래서 신입인 월급 받고 일한다는 말도 생긴 걸 테고, 이것을 몰랐다. '처음'을 벗어난 나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이버 학교 이야기를 해보지만 사이버 학교에 입학한 후 '이걸 매일매일 늦지 않고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 계층의 끝판왕인 내가? 능동적으로 인생을 살아온 시간 보다 수동적으로 인생을 살아온 내

가? 대면 수업이라도 해야 어떻게든 제대로 일어나 지하실 타고 쫓긴 눈 비며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려야지' 스스로를 다그칠 텐데, 사이버 강의? 그때부터 끝이 울리기 시작했다. 화려한 대학 생활을 바라던 것은 아니었다만 사람 같은 대학 생활은 바라왔었는데 돼지와 같은 게으름의 끝판왕인 엉망진창 대학 생활과 직면한 후 나는 좌절했다. 시끄러운 알람시계도 소용없었다.

1시 수업을 3시에 듣기 시작하면서도 열에 열다섯이었던 그 당시 나는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정말 '잘' 할 공리만 했다. 게으름이 대수냐. 이겨내겠다. 다짐했다. 처음인데, 또 이 사실을 망각하고야 만 것이다. '처음'과 '나날' 때마다 내가 하는 흔한 실수였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활활 타오르던 의지의 불씨도 서서히 꺼져가고 사이버 대학 생활 한 달 만에 나는 열심히만 하지 다짐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 어쩌면 정말 한 곳 차이일 텐데 어제의 나보다 성장한 나를 보여 허탈할 수 있겠다. 신기했다. 이것을 겨우 알자리에 '2' 하나 달았다고 깨닫는다.

나는 이러한 과정이 참으로 중요하다 본다. 이게 대체 왜 중요한 과정이냐 물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좋은 변화였다. 변화를 받아들이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 결과가 좋았다. 묻는다면 그다지 좋은 결과는 아니었다 만 만족했다고 말하고 싶다. 1년간 참

많은 일이 있었고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내가 못한다고 해서 나를 책망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으며 처음이니 배워 나가면 된다고 다독여준 사람들만 한 트럭이었다. 시속 10km로 달리는 트럭 뒤에 날 밟고 타준 사람들에게 참 감사했던 1년이었다. 아직 삶만 하단 생각이 절로 들었다. 참으로 고마운 선배님들 그리고 동기들. 고마움을 전할 수 있을 때 많이 전하고 싶다. 고맙습니다.

간사를 전하다 보니 해가 바뀌었고 또 나에게 처음이 다가왔다. 스물둘, 스물셋은 또 처음이다. 처음이었던 대학 생활 미숙했던 스물하나보다 조금 더 성장한 내가 스물셋을 겪는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까지 또 많은 시간이 걸릴 테지만 많은 것을 경험하고 경험을 바탕으로 나만의 세계를 구축할 생각이다. 내 계로 올 수많은 처음을 반겨줄 생각이 고.

사람은 때때로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가 이 세상엔 허다하다. 것을 이젠 안다. 그럴 땐 정말 속상할 수도 억울할 수도 있다는 것 또한 이젠 안다. 나도 그랬으니. 하지만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자책할지 모르나 그동안의 노력을 묵살하지 않았으면 한다. 애정을 기반으로 행한 노력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 간의 노력을 함께한 이가 그동안 결을 지켜준 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새로운 시작에 놓였을 때마다 이 말을 기억했으면 한다.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이 당신의 노력을 기억할 것이라는.

이달의 명언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토니 로빈슨

당신이 변화해야 하기 전에 변하라. -잭 웰치

교육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네스 만델라

네 컷 만화

변화와 시작



올해도 시작된 새로운 3월! 여러분이 새롭게 도전하는 모든 일들에 행운이 있기를 바라면서 작성해본 카툰입니다! 올 한 해도 함께 힘내면서 방역에 준수하여 즐거운 새 학기 보내길 바랍니다! :-) 올 한 해도 모두 파이팅 합시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동서대학교에 입학한 것이 었게 같은데 벌써 2021 설까지 보내주게 되었다. 2020, 작년 한 해는 나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난 해였다. 3년간 정든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벚꽃이 만개할 때쯤에는 설렘을 안고 동서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동기 친구들, 선배, 교수님, MT, 전공수업, 동아리, 학창 시절 마냥 동경해왔고 이제야 접할 것들을 고대하고 있었지만 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너무나도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코로나19 사태에 팬데믹에 빠지고 만 것이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해야 하니 MT는 고사하고, 입학식도 졸업식도 할 수 없었다. 당연히 강의실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 수업도 진행할 수 없었다. 때문에 개강이 멀리까지 갔다.

더 이상 개강을 미룰 수는 없는 탓에 모든 강의가 온라인으로 전환되었다. 전자기기에 익숙한 세대인 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업이 그리 불편하지 않았다. 하지만 또래들보다 낯선 프로그램을 다루는 것을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강의를 진행하여야 하는 교수님들은

프로그램을 다루기 더 어려워하였다. 또 직접 마주하지 않으니 학생과 교수 사이의 소통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였다. 학생과 교수 사이의 소통만이 아니라 영화와 20학년 동기들과도 만날 수 없었던 한 학기 내내 같은 과 친구들을 사귀지 못하였다. 제대로 된 학교생활을 즐기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만을 듣다 학기가 끝나버린 것이다. 이렇게 작년 대학에 입학한 20학년 새내기들을 '코로나 학번'이라 부른다고 한다. 짧게 지나갈 것이라 생각했던 코로나19가 점점 심각해졌다. 수업으로 오프라인으로 전환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 나의 감정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초등학교 5학년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장악영재원에 다니는 글쓰기에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때는 단순히 글 쓰는 것이 좋다는 생각뿐이었는데 TVN에서 방영되었던 '미생'이라는 작품을 접하고 나서 내 머릿속에서는 큰 충동이 일어났다. 이후 '미생'에 나왔던 배우의 독립영화를 보고 난 뒤, 추상적이었던 꿈이 구체적으로 그려지기 시작했다. 종이에서 활자로 표현된 이야기를 차원을 넘은 영상

시작, 변화

으로 만들어낸 것에 큰 매력을 느꼈다. 글도 다양한 표현법이 있듯 영화도 연출이라는 다양한 표현법이 있었다. 나도 저런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다. 그 꿈을 간직하다 드디어 출발선에 첫 발을 내디뎠지만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들어온 친구들과 선배 사이에서 나는 정말 무물 안의 개구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보다 더 뛰어난 열정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나는 우울함을 겪었다. 어떻게 노력하여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 큰 좌절을 겪었다. 코로나19로 인해 폐쇄적인 생활을 하고 있던 탓에 더욱 크게 흔들리고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더욱 크게 맞이한 기분이었다. 나에게 기대한 것이 많았는데, 누구보다 믿고 있는 스스로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했는가, 시간을 두고 나를 지켜보니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점점 씻겨 내려가기 시작했다. 조별 과제를 하고,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며 대면 수업이 활성화되면서 동기를 만나게 되었다. 졸업할 때까지 못 전해지던 어쩌나 하는 걱정은 사라진

오래였다. 그전까지의 나는 동기들을 동료가 아닌 경쟁 상대로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후에는 열등감이 아닌 동료의식을 키울 수 있었다. 모든 영화와 동기의 목표일 '좋은 영화를 만들기'를 다시금 삼키시켰다.

부정적인 피드백을 들을 때면 침울해 하지만 했는데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부족한 점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함도 알았다. 이러한 일들은 12년 내내 정해진 시간표 대로 생활하여 그저 수동적이던 나에서 성장해 주체적인 나로 변화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후 나는 성적장학금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학기 내내 나는 안될 거라던 부정적인 감정만 가득 채워놓던 것이 민망하기도 하였다.

학교생활을 하며 안될 것이 없다고 깨달은 나는 평소 게으름이 습관이던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2학기가 끝나고 겨울방학이 시작되자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였고 책을 많이 읽으려던 교수님의 조언에 따라 도서관에 자주 들렀다. 영화도 이틀에 한 편씩은 보려고 노력하고, 동기 친구들과 시나리오 스터디를 시작하였다. 나를 무한한 가능

으로 채워보고 싶다.

폭풍 같은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시작되었다. 달라지는 것도 있고, 달라지지 않는 것도 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는 쉽게 잠잠해지지 않을 것 같다. 올해 입학한 20학번 새내기들도 '코로나 학번'이라 불리었던 20학번들과 별반 다르지 않으리라 짐작된다. 작년의 나처럼 시작의 출발선에 선 20학번 후배들은 한 걸음 내디디며 이 변화에 적응해야 하겠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작년 한 해 동안 새롭게 변화된 시스템에 적응한 동서대학교 교수님들과 선배들이 두 손 꼭 붙이고 도울 것이다.

그렇다면 올해에 새롭게 변화할 것, 코로나19에 적응한 우리가 다시금 맞이할 변화는 무엇일까? 낯설은 늘 두렵지만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말처럼, 올해도 분명 해성처럼 나타날 그 변화를 즐겨보려고 한다.

오 며칠간 매서웠던 추위와 바람이 점점 수그러들고 있다. 글 볼이 올 것이다. 언젠가 벚꽃이 만개한 교정에서 만날 것을 기대하며, 직면한 시작과 변화를 발전으로 이루어낼 동서대학교 모든 학우들을 응원하며 이 글을 마친다.

목회칼럼

당신은 중요한 사람



유인신 교목실장

2021년도 봄 학기를 맞이하는 동서 가족들 환영합니다. 재학생들뿐 아니라 특히 코로나 2학번 여러분들을 기다렸습니다. 이런 대학 없는 동서대학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 설레고 좋아요.

여러분을 위한 자리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번 주변 친구들 둘러보세요.

대면으로 만나든 영상으로 만나든 우리는 모두가 너무나 서로가 달라요. 웃매무새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죠. 이렇게 우리는 모두가 유별나답니다. 디자인하신 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나가요. 그래서 살맛이 나고 살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별난 사람을 별나게 살도록 해주신 별난 대학입니다. 다시 만나는 재학생 여러분! 처음 만나는 신입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바로, 이런 대학 없는 동서대학교가 여러분들이 있을 곳입니다.

긴장을 푸세요, 질هد드릴게요.

잘 지내자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사람이죠, 부모님에게 중요한 사람이죠, 우리에게도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유별나니까요!

유별남은 유별남으로 길이 보존해야 된다고요. 다 같으면 그중에 하나만 쓰고 나머지는 버려도 되지만, 유별남이면 버릴 수도 없고 그 고유한 쓰임새에 꼭 이어야 합니다. 유별남서 좋은 여러분은 유별남서 살맛 나게 되고 여러분의 각각의 유별남을 더욱 우리가 빛나게 해 줄게요. 이런 대학은 없습디다. 동서대학교는 하나밖에 없는 유별남 대학입니다.

동서만평

글·그림 정희진



DSU 동서대신문기자협회

동서대신문사 ▼

|수습기자 모집 광고|

수습기자 모집 일정

- 일반기자(대학단신, 기획/특집·글로벌·취업·문화)
- 동서대 신문사에 관심 있는 동서인 누구나 지원 가능
- 지원 : 3월 1일~3월 20일까지
동서대 홈페이지 모집란에서 동서대 수습기자 모집
안내 참조 후 편집국장에게 연락바랍니다.
- 면접 : 개별 연락 드립니다
- 문의 : Tel)320-2141(산학협력관 5609)
010-6771-8237(편집국장)

~ 3월 20일 수습기자모집

당신의 열정이
크ampus를 만듭니다

Made in DSU Press